

#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상담사업 실태

오 운 자(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박 선 민(동대문구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팀장)

도 은 숙\*(경희대학교 대학원 가족학전공 박사과정 수료)

우리나라 가족정책 기본방향의 우선순위인 가족기능강화를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문화사업의 확대를 역점추진과제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가족상담은 위기가족에 대한 맞춤형 가족상담 등 가족보호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지역별 가족상담 연계망 구축 등 가족보호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혼관련 가족상담을 지원하면서 이를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다. 본 연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의 가족상담사업의 실태를 파악하는데에 목적이 있으며 나아가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가족상담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연구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본 연구는 D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상담사업을 대상으로 내용 및 전문인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전개한 가족상담사업에 기초하여 조사하였다. 자료분석은 상담전담조직 및 인력현황, 운영방식, 상담사업실태로서 상담유형, 프로그램명, 시행회수, 참여인원, 만족도(5점척도 기준) 등에 대한 빈도 및 만족도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전문가자문회를 통한 추진성과논의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족상담사업 실태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전체 상담사업 개요 실태는 첫째, 상담전담조직 및 인력은 14명으로 상근자(2명), 위가족상담사(1명), 상담자원봉사자(2명), 전문상담원(9명)이었다. 둘째, 전체 상담이용자(내담자, IP 포함)가 2,793명으로서 여자 1,796명, 남자 917명이며, 상담을 구분해보면 집단상담 1,147명, 개인상담 1,302명, 가족상담 264명으로 나타났다. 상담형태별로는 집단상담 1,147명, 면접상담 1,218명, 전화상담 307명, 심리검사 99명, 사이버상담 40명, 기타 1명이었다. 상담유형별로는 이혼전후상담에서 개입시기를 살펴보면 이혼전 301명, 이혼후 17명, 위기가족개입 242명, 일반상담 1,006명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체상담사례수(1,430사례)에 있어서 개인상담은 91%(1,302사례), 가족상담은 9%(128사례)였다. 넷째, 개인 및 가족상담을 제외한 집단상담 및 기타 상담사업은 총 9개로서, 1) 공통사업으로는 이혼전집단상담으로서 상하반기 각 1세트씩 4회기로 진행, 평균만족도는 4.0, 4.1이었다. 2) 선택사업으로서 ① 부모-자녀관계향상 집단상담으로 상하반기 각 1세트 4회기로 진행, 평균만족도는 각각 4.1, 4.7 ② 장애아가족부모집단상담은 1세트 4회기로 평균만족도는 4.7 ③ 장애자녀부모자조집단상담으로서 1세트 4회기로 평균만족도 4.7 ④ 위기청소년집단상담은 9회기로 만족도는 4.6 ⑤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으로서 1회기부터 7회기로 구성, 만족도는 3.5~4.5 3) 선택사업으로 상담수퍼비전 및 사례회의로서 상담수퍼비전 2회, 상담사례회의 5회 수행, 만족도는 4.0~4.2, 4.7로 나타났다. 다섯째, 추진성과논의의 주요내용으로는 상담을 통한 문제해결, 성장에 도움, 객관적 이해의 기회, 신속한 가족관계 신뢰감 형성, 정서적·정보적지지, 유관기관 연계 및 체계적 분담, 직간접적 경험, 전문상담기관으로의 자리매김, 예방에 기여, 상담의 질과 사명감 향상 등이 해당된다.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으로는 사례관리의 체계화작업 시스템 필요, 상담사업 참여이수증을 제공하므로써 예방강화대책으로 활용, 상담유형별 세부적 접근방법 요구되며, 가족상담 종결 이후 내담자 및 가족역량과 강점에 기반한 건강한 가족자원개발이 요구되는 바이다.